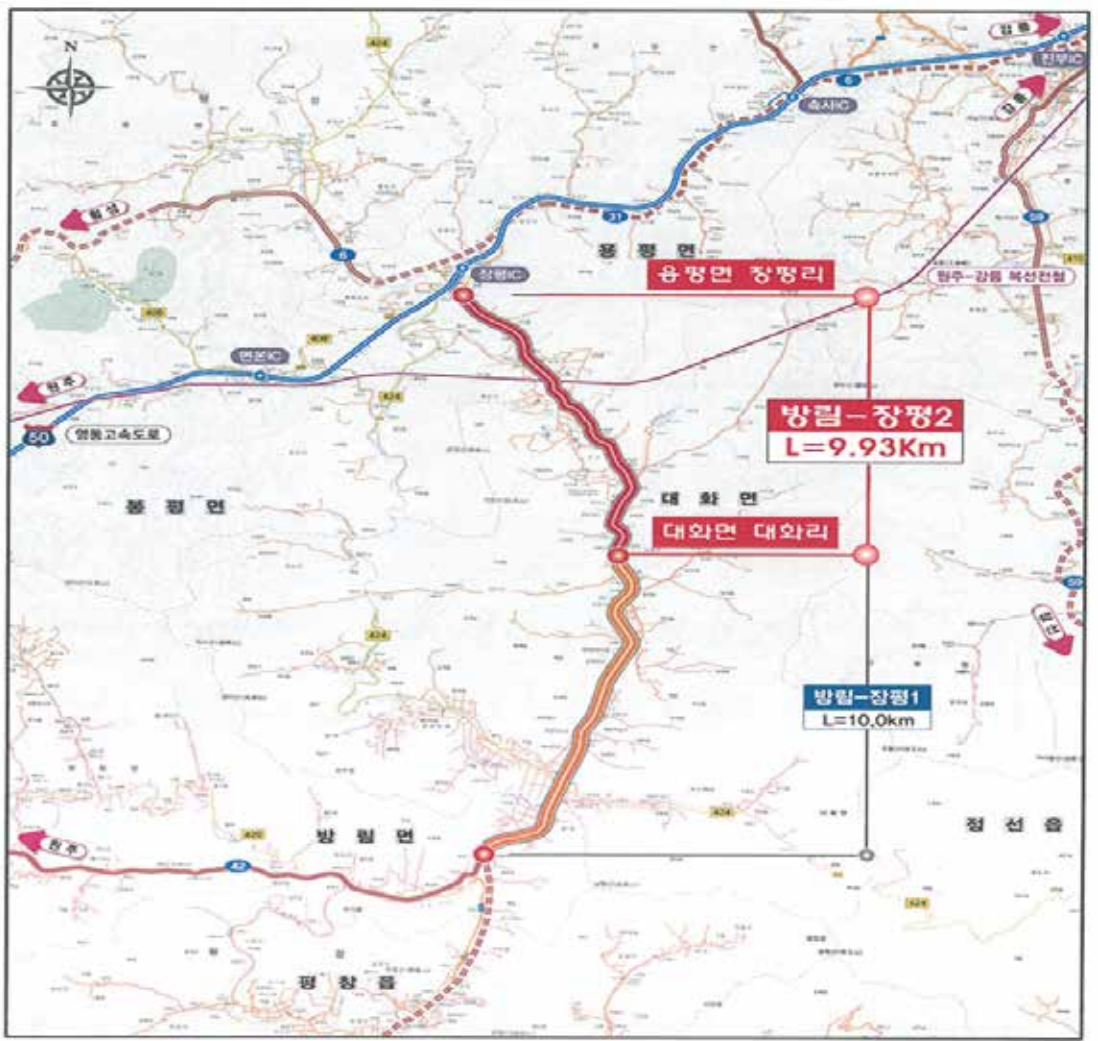


국도 31호선 평창 방림-장평 건설공사 12월 완료

국도 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2도로 건설 공사가 빠르면 올해 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시작된 도로 공사는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도 31호선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방림면 방림리~대화리까지 이어지는 연장 19.9km, 2차로(폭 B=10.5m) 개량 공사로 교통량이 일일 기준 2018년 기준 6,581대에서 2030년 7,903대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국토관리청은 방림-장평간 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방림~장평간 교통량 급증과 선형 불량 등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부분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고, 우회도로 및 선형 개량을 통해 교통소통에 원활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 간의 원활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의 사랑 나의 신문

온통 세상은 코로나 늪에 묻혀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젠 마스크가 일상화되어서 세 살 밖에 안되는 조카는 밖에 나가 자면, 마스크 부터 챙기는 모습에서 대견하다 못해 측은 지심이 일어난다.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쓰면 얼마나 어떻게 불편한지 모르는 놈은 '바깥세상은 곧 마스크 다'라는 공식이 배어 버린 것이다.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싶어도 손가락부터 헤아리게 된다. 누구하고 먹을까? 고민하다 보니 애꿎게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기가 다반사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편가르기가 되고 이웃 간에 왕래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 소통의 부재가 늘어나고 근거 없는 뉴스에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 (MassMedia)는 크게 방송, 신문(잡지), SNS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 나는 신문을 좋아한다. 방송은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잔상이 오래가지 않아서 쉽게 잊히고, SNS는 의도

적이고 주관적인 생산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뉴스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에 한계를 느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은 다르다. 뉴스의 시급성 에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실(Fact)에 기반을 둔 정보 전달과 이를 정리하여 짚어주는 사회 현상이나 경제, 문화, 예술 등을 평가와 더불어 소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세상 돌아 가는 지혜도 얻고, 자연스럽게 안목도 키우고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직업 특성상 지역을 돌며 근무하다가 정년에 이르러 고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먼저 접한 것 중의 하나가 '평창신문'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신문은 있었다. 늘 일간지를 접한 나로서는 대충보다 왔는데, 고향에 안착하면서 접한 신문은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흘려보냈을 옆집 이야기, 입소문을 통해 전해들은 진실도 신문에서는 사실이 아니었음을 설명해주었고, 지역주민이 가장 목말라 하는 군 정책

도 알기 쉽게 배려하는 모습에서 지역 신문의 참 가치를 알게 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기댈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럴 때 '평창신문'이 친구도 되어 주고 더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장애인, 소외계층의 아픔을 대변 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지역민들이 기대고 의지 할 수 있는 신문! 진실의 소리를 전하는 신문! Forever!



칼럼리스트
김수영

민선 7기 공약 완료 사업

소득이 안정된 농촌 만들기 -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본지는 민선7기 소득이 안정된 농촌 만들기의 일환인 농업인력지원센터설치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로 추진되는 농촌 고용 인력지원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농업 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있다.

사업내용은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 배치, 영농 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2021년부터 대화농협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8백만원의 사업비로 센터 운영 인건비 외 2개 사업과 인력 운영을 위한 영농작업반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개인, 법인)이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력센터에서는 영농철(농번기철)에 대도시 유휴 인력 소개 및 연결을 지원하고 영농작업반 구성을 통한 영농작업을 지원한다. 4개조 영농작업반(작업반장 포함 10명 내 외)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고령,

여성 단독 농업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된다.

참여근로자는 산재보험료, 작업 도구, 교통·숙박비, 현장실습 교육,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농업인력지원센터(대화농협)

-담당자 및 연락처

이원상 과장, 033-339-8921

-평창군 유통산업과

농촌 활력 팀장 박용만, 033-330-1379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토대장정

대관령 스키 역사 박물관장 김영교 씨는 2021년 4월 1일 9시, 영월 김삿갓 생가터를 출발하여 2024년 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염원을 담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국도보일주 국토대장정을 시작하였다. 경로는 김삿갓 생가에서 출발하여 김삿갓 묘소 참배를 하고 태백을 지나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을 걸쳐 DMZ 평화 누리 길을 걸어서 평창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2007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전국 국토를 롤러 스키로 발자국을 찍은지 14년 만이다. 이번엔 두 발바닥으로 약 4,000km를 걸어서 그림자를 남길 예정이다.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완성하자는 의미를 담아, 100일간 하루에 도보로 40km를 완주할 작정으로 길을 나섰다. 60대 중반 나이에 힘든 체험이라고 주위에서 많은 만류도 있었다. 그러나 김영교 관장은 코로나 19로 식어가는 축제인 만큼, 다가오는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안전한 몸과 마음으로 뜨겁게 치러내기 위한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첫날부터 발에 물집이 생겨서 터지는 고생을 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은, 쓰라리던 상처에 새살이 돌아나 굳은살로 변했다. 밤잠은 차에서 자고 식사는 시골 주막이든 횃집이든 발길 가는 곳에서 해결 한다. 흰 한복에 삿갓을 쓰고 누런 속살을 드러낸 구부러진 나무 지팡이는 손잡이가 힘겨워 보인다. 바람 끝에 매달려 떨어질 듯 흔들거리는 짙신 한 켄레가 안동김씨 김삿갓의 후예임을 알려 준다.

함께 가는 이종호 작가가 가끔 도로를 행보하는 영상에 노래를 입혀서 sns에 올려준다. 방랑시인 김삿갓은 길을 가다가 발길 닿는 마을에 몇 달씩 머무르며 원하는 가정에서 훈장도 하고, 글도 써 주고 숙식을 제공 받기도

했었다. 시인이기도한 김관장도 길을 걷다가 자연과 마음이 닿는 곳에서 꽃이 되고 나비가 된다. 각기 다른 얼굴을 한 돌과 나무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봐달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아우성치면 그들과 교감을 하기도 한다.

가끔 자작시 낭송을 적시적기에 맞추어 하기도 한다. 김관장은 스키에 애착이 매우 커서 우리나라 스키대통령이란 애칭이 있다. 긴 겨울 눈이 많이 내리고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까운 스키의 고장 대관령면에서 태어나, 용평 스키장이 생기기 이전 부터 아버지(고 김용욱 군수)가

만들어 주신 아우라 나무 스키로 스틸을 탐색했다. 그 후 1975년 용평스키장이 생겨서 후학을 100여 명 길러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양성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김영교 관장의 소망이며 평창군민 모두의 소원인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세계인의 화합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함께 응원하는 국토대장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기자 곽복진



대관령스키역사박물관장 김영교

평창신문 시민기자 위촉식 및 실무교육 워크숍 개최

평창신문(대표 김동미)은 4월 13일 오전 10시 시민기자 위촉식 및 기사작성 방법, 취재 실무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사전에 위촉한 시민기자 10명이 참석하여 김동미 대표로부터 위촉장을 전달 받고 시민기자 서약서를 작성한 후 활동에 들어 갔다. 위촉식에 이어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평창신문 편집위원인 김남권 시인은 기사작성 방법 등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위촉된 시민기자는 허순애 고문을 비롯해 평창읍 김남권 편집위원, 미탄면 이경영, 김숙영, 봉평면 이경운, 임하에 진부면 최선진, 용평면 광복진씨 등 10명이 참석해 지역 언론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김남권 작사 '달이 자꾸 따라와요' 2021 KBS 창작동요대회 우수 노랫말상 수상



4월17일 오후 5시에 개최된 2021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김남권 작사 이진희 작곡 김가현 노래 '달이 자꾸 따라와요'가 우수 노랫말 상을 수상했다.

“어릴 때 할머니를 보러 갈 때면 캄캄한 밤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기억을 살려 우리 어린 이들도 달을 보며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발표한 김남권 시인은 시집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 니다' 외 동시집 '1도 모르면서'와 시 낭송 이론서 발간을 하고 종합 문예지 계간 문예감성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대회 실황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12시 25분 KBS1TV로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 너를 보내고 >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하여

김숙영(시민기자)

너를 보내고 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찾잔은 아직도 따스한 채 남아 너를 기다린다
너이기를
너였으면
너의 냄새이길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붉은 눈물...

나 얼마나 오랫동안
너의 향기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아야 할까.

갈 수 없는 그 길을
나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아야 할까.

물안개가 피어오른다.

가슴은 차가운데
눈물은 왜 이리 뜨거운가.

찾잔은 식은 지 이미 오래지만
내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든다.

빈 바다에 눈물만이 날린다.



▲ 세월호사건 그 해 그 느낌을
작품으로 담아 전시한 그림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 6년째, 한 호흡 봉평면 설장구 팀

“나이 들어서 이곳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활동한다는 게 그냥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용평면 상설 공연장에는 흥겨운 장구 소리와 찌렁찌렁한 정선주 강사의 밝은 목소리와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예순, 일흔을 넘은 회원들이 청춘 못지않은 열정과 하나 된 호흡으로 설장구와 인연을 맺은지 벌써 6년째다. 나이 들어서 좋은 고장에서 좋은사람들을 만나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꺼내놓고, 함께 어울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가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봉평면 설장구 팀의 연습 현장은 생동감이 넘쳤다.



정선주 강사(67)

우리가 사실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서 할 수 있는걸 할 뿐, 매일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곳에서 좋은 분들 만나서 활동한다는 게 그냥 좋습니다.

정선주 강사님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40년째 풍물을 해 온 정선주예요.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15년 전에 평창에 내려와서 늘그막에 좋은 분들 만나서 북 장구 치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해 지금은 6년째 하고 있어요. 일년에 두차례 요양원이나 시설로 가서 방문 공연을 해드리고 있어요. 공연을 하면 호응도 좋고 회원분들께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민요, 춤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설장구에서 뽐내고 있어요. 연세가 70 넘어 80을 바라보는 분들이 결석 안 하고 와주셔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봉평면 설장구팀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부회장 이순완(70)

2003년도 귀농해서 어느덧 19년 정도 되어갑니다. 설장구팀을 5년 전에 만났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다가 팀이 만들어져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앉아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같이 춤을 추면서 장구를 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수준이 있는 춤 이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될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춤은 잘 못 추지만 가락을 출 수 있다는게 올해 70이지만 같이 놀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런걸 할 수 있고 노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김병숙 회원(76)

저는 봉평에 이사 온 지가 16년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 설장구 한지 4년되었어요. 처음에 좋은 건 흥이나서 좋지만 두 번째는 운동이 되어서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치니 배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런걸 할 수 있고 노년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집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무얼 배운다는 것도 참 기쁘요”



차명희 회원(67)

가락이라던가 음치, 박치, 몸치예요. 전혀 이런 거를 접해본 적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가락 치는걸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커져서 지금은 평창군 설장구가 되었어요. 아무 것도 해보지 않고 집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무얼 배운다는 것도 기쁘고 일년에 한두번씩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곳에 공연을 가는게 우리에게서 쉬운 게 아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여럿이 어울려 함께한다는 게 기쁘고 보람되었어요.

설장구가 궁금해요

설장구는 으뜸 장구라는 뜻이에요. 풍물판에서 으뜸가는 장구가 나와서 장구 놀음 하는 걸 설장구라고 해요. 그걸 따와서 장구를 하는 거예요. 설장구를 만든 선생님께서 장구의 어려운 가락과 쉬운 가락의 조합을 기가 막히게 해 놓으시고 스토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스토리에 따라서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 이별을 하고 가을에 가서 자진모리때 인생의 희락을 하는 이야기, 연풍대에게서 돌고 돌아 환생하는 이야기 등 깊은 뜻을 가지고 설장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평창에 와서 그냥 장구가락을 치는 것 보다 설장구의 사연을 들려 드리고 싶어서 설장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와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수업 시간이 되면 함께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추기도 하지만 멈추면 멈추는 대로 수업하는것도 참 좋습니다.

설장구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무 석혜숙(52)

평창군 설장구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 없이 와서 배울 수 있어요.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평창신문 010-4213-5711)



빈센트 반 고흐 혼자수 작품전 '디어 빈센트(Dear Vincent), 별이 빛나는 밤에'

인터뷰 - 작가 이용주



평창과의 인연

평창이 저에게도 참 뜻이 있는 곳이거든요.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2월 23일에 IOC 조직위 바흐 위원장이 저를 만나기 위해 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바흐가 제 작품을 보고 “세상에 이런 작품은 처음 봤소.” 라고 하더라고요. 평창동계올림픽의 작품들을 스위스에서 전시를 해 줄 수 있겠냐해서 2018년 4월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오프닝 때 토마스 바흐 위원장 스위스 주한 대사가 참석했어요. 당시 바흐가 평창의 동계올림픽을 표현한 다섯 작품을 소장했어요. 평창과 저에게는 대단한 인연이에요. 기회가 다시 있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작품을 평창에서 전시할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작가 이용주를 찾아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유명인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셀린디온이 제 작품 보고 평평 울고, 이탈리아의 작곡가, 지휘자, 트럼펫 연주자로 여러 공연 음악과 500편이 넘는 영화 음악을 작곡한 영화음악거장 엔니오 모리코네는 부인을 데리고 직접 제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작년 오스트리아 하인츠 피셔(Heinz Fischer) 전대통령도 직접 제 미술관에 찾아왔어요. 가장 소박하고 가장 평범한 우리의 자수를 현대와 접목해서 예술로 하다 보니까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미술을 만들어 냈다고 극찬했다며 찾아오곤 합니다.

혼자수 기법이 궁금해요

제가 하는 혼자수는 비단천에 비단실로 수 놓은 거예요. 프리즘 삼각형 빛이 분산시키기 때문에 무지개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비단은 한 올 한 올이 빛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해요. 비단에는 고유한 광택이 있거든요. 저는 이 실을 꼬거나 풀거나 해서 일정한 수를 놓는 방향으로 빛을 분산시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작가 이용주의 빛으로 재탄생한 반고흐

(제 작품을 감상할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면서 찍다 보면 모든 빛이 변하거든요. 아침에 뜨는 해와 중천에 뜨는 해를 한 작품에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작품은 자화상, 풍경화를 많이 그렸어요. 고흐의 그림들 또한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렸기 때문에 변하는 빛을 화폭 속에 담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고흐가 표현하지 못했던 빛, 숨겨진 빛이 있는데 어깨 뒤에 있는 빛, 해가 뜨면서 변하는 빛, 그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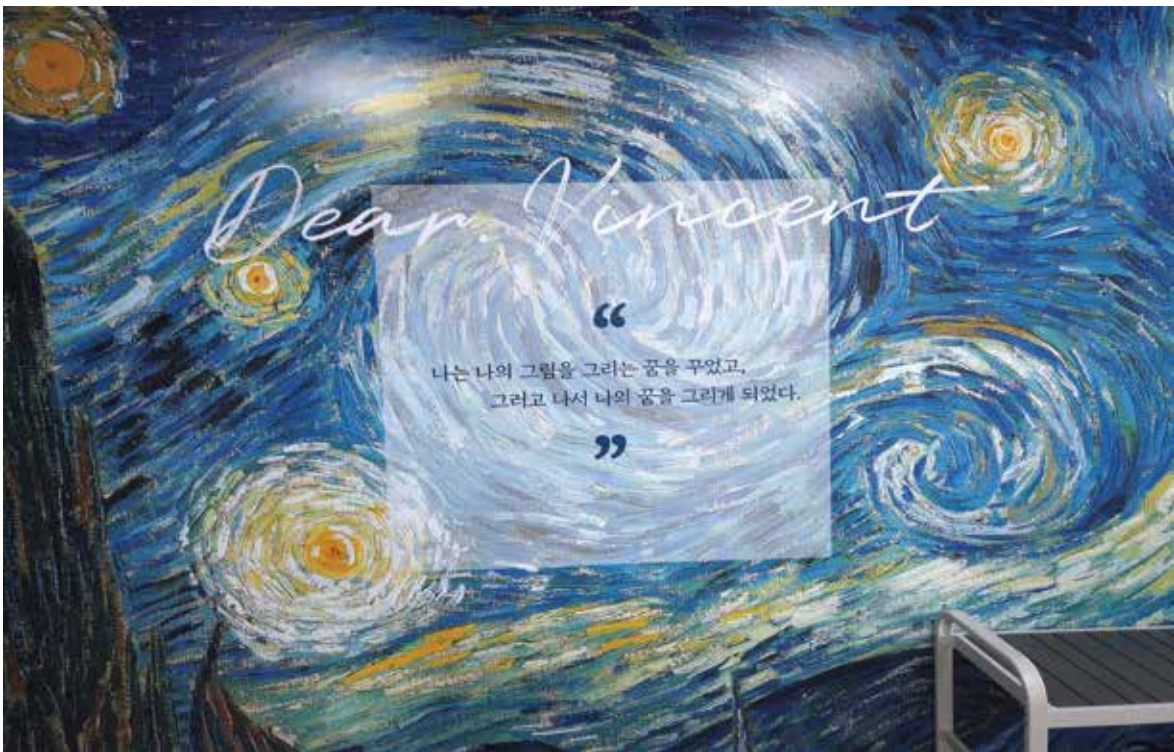
아이들에게는 어떤 전시가 되길 바라는지

고흐의 작품을 아이들이 많이 보면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남들하고 똑같이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눈으로 작품에 임했듯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줄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고흐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해서 고흐가 바라봤던 사물을 좀 더 다르게 해서 바라볼 수 있는 작품으로 아이들이나 미술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봉평 달빛생활문화센터에서의 전시소감

평범한 폐교 같았는데 들어와 보니 서울의 예술의 전당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 전시도 알차게 되어있고, 바깥의 모습과 달라서 놀랐어요. 이런 곳에서 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적한 곳에 있긴 하지만 사람을 끌 수 있는 것은 기획전을 하듯이 특화되어있는 부분, 우리 작가들이 우리의 것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 별을 볼 수 있고 밤하늘을 볼 수 있는 등 이곳과 관련 작품들을 전시한다면 서울에서도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4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봉평콧등작은미술관에서 개최되며, 5월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부문화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 기간 중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반 고흐의 생애를 배경으로 50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 '한 켄레의 구두', '비온뒤의 밀밭', '고흐의 자화상' 등 대표 걸작들의 생동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김동미



Who am I ?

몰아치는 태풍으로 창밖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린다. 드디어 침묵하던 바람의 속성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순간 내 마음도 요동치는 바람이 된다. 나무도 된다.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나, 무엇이 나인가? 20여년 전부터 그것을 알기 위해 마음 공부하는 곳을 찾았다. 그리고 문학과 철학 강의실에 가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 시간들이 더 없이 값지고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6년 뒤 자연 공부를 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무엇인지 모르게 이끌려온 이 곳 강의실에서 생명의 빛인 '오라'와 '공명'을 즉 에너지장의 정보를 강의하는 교수님을 만났다. '오라 이야기, 컬러이야기' 그것들은 양자 물리학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누구나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내가 누구인가? 저 우주는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과학이 내놓은 답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다. 이 두 개의 영감을 불어 넣은 것이 바로 "빛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음(陰)과 양(陽),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질과 현상, 인체도 마찬가지로 두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음에 속하는 형체와 양에 속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의 세계에서 물질은 파동성(양)과 입자성(음)이 있다. 물질의 입자적 질량을 측정하려면 파동적 속도를 측정 할 수가 없고 속도를 측정하려면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태양계에서 3번째 행성인 지구, 3천 만종의 동식물이 함께 숨쉬며 살고 있는 이곳. 생명의 필수 원소인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칼슘, 칼륨, 황, 인, 철, 마그네슘 등 10원소 외에 19종의 원소가 더 있다. 이 원소들이 모두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 만물과 사람도 원자로 그리고 태양 마저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미시세계, 그 물질인 빛, 광활한 우주에서 한 점의 빛은 떨림(파장)의 범위에 따라 지구라는 스펙트럼에 투과된다. 투과된 빛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직진, 분산, 합성, 산란등 다양한 원인으로 또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 똑같은 방법으로 형형색색의 빛(개성)으로 물들여지고 있다. 스크린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컬러는 각양각색으로 관찰자들에게 물들여진다. 무지개 빛은 하나에서 시작된 서로 다름을 가장 선명하게 관찰하게 해준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서도 음양(陰陽)간의 변화 속도는 빠르게 변한다. 음즉양 양즉음이다. 양(陽)은 언제든지 음(陰)으로 변할 수 있고 음 또한 언제든지 양으로 변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 또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하루에도 오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 오만 가지 색(생각)이 끊임없이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밖의 요동치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의

흔들림을 감지한다.

일본의 휴먼 컬러를 먼저 수강 했다. 또 무지개 색의 일곱가지 색을 그리고 다섯가지 색(마젠타,블루그린, 터콰이즈,골드,핑크) 색을 공부하면서 일 년을 넘겼다. 결국 모든 색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희노애락과 너와 나의 관계성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수업 과정 중 인적성 검사의 하나인 CPA(Color Personal Anylist)의 수업시간이 돌아왔다. 컬러 DNA정보, 공명과 비공명 컬러정보, 도형정보 그리고 혈액형이 합쳐져서 CPA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사람의 마음과 성격, 성향을 찾아주는 안내인의 역할 이었다. 오래전 주역과 명리학을 들은 것이 이것과도 연계가 되고 있었다. 나의 생년월일을 리스트에 적었다. 그리고 혈액형도 적었다. 눈앞에서 열두가지 컬러 투명 바틀들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다. 지그시 눈을 3초동안 감은뒤 눈을 뜬 바로 그 순간의 컬러를 뽑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뽑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의 선택, 그 공명으로 퍼플컬러와 터콰이즈컬러를 뽑았다. 이번에는 천천히 컬러버틀을 보면서 남은 버틀 10개 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컬러를 두 개 뽑는다. 비공명으로 골드컬러와 레드컬러를 뽑았다. 공명 도형은 동그라미였다. 3초만에 결과가 나왔다. 기질은 수2형(癸水), 인지(씨앗)패턴은 블루그린컬러이며 행동(껍질)패턴은 터콰이즈컬러였다. 7남매들 중 제일 생각이 깊고(블루그린컬러), 독립적이며독특한나의성향은터콰이즈컬러의메시지 그대로였다.줄줄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어디든지 스며들어 뚫고 나아갈 줄 아는 삶의 지혜로움도 어쩌면 나의 기질을 그대로 말해 주는 듯하다. 인지 컬러란 자신의 세계관 및 가치관을 나타내는 컬러이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등을 내면에서 인지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행동컬러는 외부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나타내는 컬러로 말투나 행동등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기질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살과 같다. 기후와 같이 전체적인 기운을 나타내는 성질로 사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성향을 보여준다.

CPA는 "언어가 아닌 무의식의 끌림으로 만난 빛과 컬러의 메시지는, 내면의 나와 깊이 있는 만남"을 제공한다. 본색(本色) DNA컬러(인지패턴)와 후천적으로 형성된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그들의 인적성 검사를 하여 꿈과 개성, 욕망,성격등을 분석하여 그들의 일생을 조망해 보는 시스템이다.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과 심신의 상태를 분석하는 특허받은 신개념 성격검사 프로그램으로서 4가지 요소(생년월일/컬러/도형/혈액형)를 이용하는 단순한 것 같지만 본질을 알 수 있는 검사이다. 성격은 현재의 환경이나 심신의 상태 또는 개인의 경험과 교육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래의 성질이 있다. CPA 검사는 타고난 성격과 성장 환경, 현재의

상태의 다양한 요소의 합리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CPA(Color 빛깔은 사람의 꿈,개성,욕망 등을 상징) Personality(성격은 사람의 말, 생각, 행동으로 만들어진 습관) Analysis(분석은 열킨 실타래를 풀어냄)는 내부 구성은 컬러DNA/오행기질(선천적인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공명/비공명(빛의 정보를 가진 컬러는 공명의 힘으로 생명에너지를 활성화, 심신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 도형/혈액형(잠재력과 학습법등의 성향파악)등이다. 타고난 성격(50%), 6세이전 형성된 것(약25%), 경험, 교육에 의한 것(약 25%)을 말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언어가 지닌 한계를 뛰어 넘어야 본질에 가 닿을 거라는 믿음으로 비언어적인 검사법을 사용하여 세계 공통어인 숫자와 도형 그리고 혈액형과 무의식의 언어인 컬러를 도구로 삼는다". CPA검사법은 단순하다 질문 문항이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모든 것(존재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검사들은 이성적 언어로 길들여진 페르소나(가면)로 답을 얻고 있다. "CPA목표에서 인성도 능력이다. 자신의 사고패턴과 행동패턴을 앎으로써 나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한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나를 의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성숙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이 경험하는 시행 착오 안에서 나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게 한다. 사람의 본래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키워드인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CPA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의 도구로 수집, 저장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는 가능하게 해 준다. 삶의 기록을 남긴 전 세계의 수많은 인물들의 고유번호를 오랜 시간을 공들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12가지 특징이 분명한 고유한 성격유형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 좀 더 온전한 분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모와 형제 자매 등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고유번호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 역시도 완성되고 활용되어 질 것으로 믿는다. 기존의 MBTI는 사람들의 성격을 16개 유형으로 나누며 에니어그램은 9가지로, 디스크는 4가지로 분류하며 CPA는 12가지컬러 DNA로 나눈다". 왜 12가지 컬러 인가? 충만과 완전한 수이다. 시간의 단위인 12 그리고 태양의 운행경로를 12지역으로 거친 순회를 묘사하여 12달로 나눈 숫자, 12동물의 12지(支)등의 숫자를 사용하였다.

"컬러는 빛의 정보로써 공명의 법칙으로 인간의 심신과 컬러 상호관계를 말하며 자신과 공명하는 컬러를 제대로 찾을 수만 있다면 컬러속에 깃든 의미와 삶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발견이 가능하며, 끌리는 컬러를 찾는 것은 곧 자신의 심리적 육체적 정보와 공명하는 빛의 메시지를 찾게 된다." 옛날 혼담이 오갈 때 집안 내력을 알아 본다는 것은 이렇듯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배에 비유한다면 감정은 출렁이는 물결과 같다.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나는 나 다왔는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 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필수 과정 중 하나이다. 내게서 떨어진 주파수는 증폭이 되어 나에게 돌아 온다. 모든 상황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너와의 관계가 모두 나이다. 우리는 빛으로 이루어 진 존재, 빛의 소명을 주기 위해 왔다. 에너지장으로 온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마음의 힘을 바꾸어주는 순간 나의 에너지장(場)의 색도 바뀌어진다.

빛의 여정, 60조의 세포는 색(色)으로 말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 세포를 춤을 추게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에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맑은 하늘을 올려다 보다가 갑자기 스킵 데이비스의 노래가 떠올랐다.

(왜 태양은 저리 밝게 빛나는 것일까?)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왜 파도는 해안으로 밀려드는 것일까?)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왜 새들은 계속 노래하는 것까요?)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왜 별들은 저 하늘에서 계속 빛나는 걸까요?)
Why do the srars glow above?

(어떻게 삶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How life goes on the way it does!
(왜? 내 가슴은 이렇게 뛰고 있는지?)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걸까요?)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

-The end of the World에서

그의 노래로 내 몸 안의 세포들은 아름다운 빛깔로 춤을 추기 시작한다.우주와 함께 '빛의 속살'을 공감하며 그들과의 조화를 꿈꾸게 된다.

오라: 모든 생명체에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고, 사람에게도 생체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흔히 오라, 또는 기(氣)라고 한다.

공명: 자기 소리와 같은 것이 있으면 끌어당겨서 중첩시킨다. 즉 내 주파수 와 같은 것이 맞닿은 순간, 그 에너지 들은 증폭하여 폭발한다.

예) 소리를 가지고 유리잔을 깰 수 있다. 유리잔이 가진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유리잔에 계속 들려주면 유리잔이 크게 떨리다가 파괴되는 것이다.



대관령음악제 '강원의 사계' 알펜시아에서 연말까지 공연

- ▶ <강원의 사계> 매달 공연 선보이며 1년 내내 강원의 아름다움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변화
- ▶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 관리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이 주관하는 평창대관령음악제(예술감독 손열음)의 연중 프로그램 <강원의 사계>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2018년 겨울 첫선을 보인 <강원의 사계>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도내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들과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 영 아티스트 콘서트 등을 선보이며 올해도 활발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원의 사계> 공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방역 관리를 위하여 모든 공연에서 좌석 간 거리 두기 시행, 공연장 소독, 열화상 카메라 배치, 클린강원 패스포트(전자출입명부)

등 안전관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순조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의 사계> 8회의 '메인공연' 티켓은 평창대관령음악제 공식홈페이지(mpyckr/tickets)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2~3만원으로 강원도민 50%,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50% 등 할인이 적용되며 이번 <강원의 사계>는 상반기 공연 패키지 상품과 하반기 공연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키지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음악제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연 및 티켓 관련 문의는 평창대관령음악제 운영실(033-240-1362)로 하면 된다.

시민기자 최선진

※ 제18회 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의 사계> '메인공연' 정보

일시	공연장	공연 출연진	공연 내용	가격(원)	할인내용
4.24(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피아노_오연택	피아노 리사이틀	20,000	
5.22(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바이올린_성경주 양상블 더브릿지	현악 오케스트라	20,000	
6.12(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피아노_손열음 지휘자_김윤식 양상블 현악기와 친구들	현악 오케스트라	30,000	- 강원도민 50%
7.3(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소프라노_홍혜란 테너_최원희 피아노_백혜선	리사이틀	30,000	- 문화누리 50% - 강원도내 학생 50%
9.11(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피아노_김흥기	피아노 리사이틀	20,000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9인 2매까지 할인 적용)
10.9(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작곡가_손일훈 클럽M양상블 피아노_박중해	작품발표회	20,000	- 패키지 구매 시 R석 30% 할인
11.13(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소프라노_임선혜	리사이틀	30,000	
12.4(토)	알펜시아 콘서트홀	첼로_유지인	리사이틀	20,000	

* 일시 및 장소와 연주자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에서 할인 관련 증빙자료 제시 필수 및 미지참 시 차액 지불
* 상반기 패키지(4월-7월), 하반기 패키지(9월-12월) 구매 시 R석 30% 할인 및 대관령음악제 기념품 증정

평창신문 시민기자 모집

평창신문 소개

창립일	2016년 4월 6일
창립자	김동민
대표	김동미
고문	허순애
편집위원	평창읍 김남권
칼럼니스트	대관령면 전두하
시민기자	대화면 김수영 미탄면 이경영 미탄면 김숙영 봉평면 이경운 봉평면 임하예 용평면 곽복진 진부면 최선진 진부면 이경선

평창신문에서 함께 활동하실
시민기자 및 자문위원을 모집합니다.

평창군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가 평창군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010-7578-5573

메일
foreststory@naver.com



미니포크레인 빌러드립니다 **하루 13만원**

1.7톤 = 13₩ 2.3톤 = 14₩ 3.5톤 = 16₩

잘 못하시면 일대로 해드립니다.

사무실(진부)
033)335-4463 / 010-5342-4463

2021년도 평창신문 구독 및 후원 안내

평창신문 구독 월2회 발행 (매월 둘째주 월, 넷째주 월)

후원계좌

월 구독료: 10,000원
(연간:선납-100,000원, 후납- 120,000원)

농협 351-1157-8041-73 (예금주/김동미)

☎010-7578-5573 / 010-4273-5711

평창신문 광고 가격 협의가능

(월별 착오시 연락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